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95/100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2학년도 예비 1~4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가)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 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밤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짜기도*** 전이다
 어데서 **줍쌀**알만 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 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 백석, 「수라(修羅)*」 -

- * 어니젠가: 어느 사이 엔가.
- * 짜기도: 삭기도 긴장이나 화가 풀려 마음이 가라앉기도
- * 가제: 갓. 방금.
- * 수라: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 고통이 지속되는 세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

이런 돼지가 살았는지요 반들거리는 검은 털에 날렵한 주둥이를 가진, 유난히 흙의 온기를 좋아하여 흙이랑 노는 일을 제일로 즐겨워했다는군요 기른다는 것이 실은 서로 길드는 것이어서 이 지방 사람들은 ㉠ **통시**라는 거처를 마련했는지요 인간의 배변 장소와 돼지우리가 함께 있는 아주 재미난 방인 셈인데요 지붕을 덮지 않은 널찍한 호를 파고 지푸라기 조금 깔아준 방 안에서 이 짐승은 눈비 맞고 흙과 똥과 똥굴면서 비바람 햇볕을 고스란히 살 속에 아로새기게 되었다는데요 음식물 찌꺼기며 설거지물까지 버릴 것 없이 모아둔 큰 독 속에서 ㉡ **한때** 빛나던 것들이 제 힘으로 다시 빛날 때 발효한 이 먹이를 돼지가 먹고 돼지의 배설물은 보리밭 거름으로 이쁜 보리들을 길렀다는데요 그래도 이 짐승의 주식이 사람의 똥이었던 것은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이라 행여 남아 있을 ㉢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려운 때문이 아니었는지 몰라

나라의 높은 분이 보기에 미개하여 시멘트 네 포대씩 무상 지급한 때가 있었다는데요. 문명국의 지표인 변소를 개량하라고 그쳤다는데요. 흔적이거나 통시가 아직 남아 내 몸속의 방을

향해 손 내밀어주는 것은, ㉤ **똥** 누고 먹는 일이 한가지로 행해지는 그곳을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 여긴 ㉥ **하늘** 가까운 섬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김선우, 「신(神)의 방」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화자와 소재 사이의 대립적 관계를 바탕으로 주제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를, (나)에서는 대화적 어조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에서는 화자의 인식 변화를 통해, (나)에서는 화자의 행위를 통해 대상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2. 공간을 중심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방바닥’은 ‘나’가 거미 새끼를 감지함으로써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깨닫는 공간이다.
- ② ‘쓸려나간 곳’은 큰 거미의 출현으로 인해 ‘나’가 심적 고통을 느끼게 되는 공간이다.
- ③ ‘새끼 있는 데’는 큰 거미가 도달하기를 바라는 지점으로 ‘나’의 상실감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 ④ ‘큰 거미 없어진 곳’은 거미에게 도움을 주려는 ‘나’의 행위로 인해 거미들의 고통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 ⑤ ‘문 밖’은 ‘방바닥’에 대비됨으로써 ‘나’가 거미들의 만남이 실현된다고 확신하는 공간이다.

3. (나)의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거처를 마련했다’라는 표현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로 생각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 ② ㉡의 ‘제 힘으로’라는 표현에서, 쓸모를 다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도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 ③ ㉢의 ‘두렵기 때문’이라는 표현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무섭게 여기는 인식이 허위임이 드러난다.
- ④ ㉣의 ‘한가지로 행해지는데’이라는 표현에서, 배설하고 먹는 행위는 생명을 순환시킨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⑤ ㉣의 ‘하늘 가까운 섬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 통시에 대한 섬사람들의 인식이 신의 섭리에 부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서정시의 하위 양식인 ‘이야기시’와 ‘산문시’는 현실 세계를 재현하려는 의도에서 출현했다. 전자는 화자와 세계의 관계 차원에서, 후자는 시적 진술의 방법 차원에서 서정시의 외연을 확장한다. 사건이나 사연 등의 이야기를 시적 구조의 기반으로 삼는 이야기시는 화자와 세계의 갈등을 담은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세계와의 합일을 지향하는 서정시 일반의 특성에서 다소 벗어난다. 행을 구별하지 않고 줄글의 형태로 시적 진술을 전개하는 산문시는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서정시의 압축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한다. 하지만 이야기시와 산문시는 여전히 함축성과 음악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서사나 산문과 구별된다.

- ① (가)와 (나)에서는 모두 중심 소재를 청각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반복됨으로써 서정시의 음악성이 실현되고 있군.
- ② (가)와 (나)에서는 모두 화자가 인식하는 현실 세계가 비유적 의미를 지닌 제목을 통해 응축됨으로써 서정시의 함축성이 실현되고 있군.
- ③ (가)는 화자와 거미가 처한 상황을, (나)는 특정 지역 생활 양식의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현실 세계를 재현하고자 하는군.
- ④ (가)는 행위의 연쇄를 담은 이야기를 시적 구조로 취하므로 이야기시에 해당하고, (나)는 줄글의 형태로 시적 진술을 전개하므로 산문시에 해당하는군.
- ⑤ (가)는 화자와 거미가 합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정시의 일반적인 특성을 벗어나고, (나)는 통시를 둘러싼 풍습에 대한 설명이 진술된다는 점에서 서정시의 압축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군.